

“달거리 공연은 ‘예향 광주’의 집합체”

컬처 & 피플

가수 김원중



“볼처럼 짧게 쓰러져간 영혼을 애도하고자 4월 달거리 공연은 문을 두드립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든 함께 하고자 고민해 공연성금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돕기 성금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이 깊은 슬픔과 분노가 이는 4월에 마음의 평화를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제법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린 지난 28일 저녁,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김원중의 달거리’ 4월 공연이었다. 이날 공연의 주제는 ‘불이 너무 짝습니다’였지만, 이번 사고로 너무나 일찍 생을 마감한 젊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해주는 듯했다.

희생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란리본 영상을 배경으로 추모곡이 보여지고 무대 위에서는 쇼팽의 ‘장송 행진곡’, ‘산벚꽃’, ‘나 이제 노래를 부르리라’ 등 추모 노래가 이어졌다.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 ‘안녕 내 친구야’는 관객들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다.

“공연 준비를 시작할 무렵만해도 너무나 평온한 봄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쓰러져간 이들을 위해 추모곡 위주로 공연내용을 수정했지요. 평소보다 많은 관객이 찾아와 주셨고, 희생자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팬클럽에서 마련한 바자회에서도 마음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공연을 이끈 가수 김원중씨는 이날 모은 성금 전액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 만드는 공연 김

원중의 달거리’는 지난 2003년 첫 선을 보였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 모으기를 목표로 김원중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매달 한차례씩 공연을 열고, 관객들은 여기에 작은 정성을 보탠다.

5년간의 휴지기를 가진 ‘김원중의 달거리’는 2010년 다시 시작됐다. 겨울철 1·2월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달려와 지난해까지 모은 시민 성금만 7600여만원에 달한다.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올해는 5월 10일에 열릴 오월창작가요제 총감독을 맡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있다. ‘달거리’ 공연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 공연을 통해 단순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성금을 모으는데 그치지 않고 ‘예향’ 광주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예술 장르

국악·미술·대중 음악·미디어 아트 등 음악적 시도 다양

4월 무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 위로

무등산·광주천·사직공원 등 광주 담은 음반 하반기 발매



지금은 ‘김원중의 달거리’로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바위섬’ 가수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1985년 발표된 노래 ‘바위섬’(작사·곡 배창희)은 5·18 당시 고립된 광주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노래로 알려졌다.

김원중을 비롯한 박문욱, 김중률, 심상균, 김정식 등 ‘사직공원 근처에서 노래 좀 한다’하던 사람들이 모여 음반 ‘예향(藝響)’의 젊은 선율을 냈고, 여기에 ‘바위섬’이 실렸다. 이후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TV에 자주 등장하는 프로가수가 됐다.

‘바위섬’ 이후 ‘직녀에게’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80년대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1987년 내놓았던 노래 ‘직녀에게’(곡 박문욱)는 발표 이후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권우와 직녀의 설화를 빌려 통일을 염원하는 문병란 시인의 시를 딴 가사 때문이었다.

90년대 들어 방송활동을 접은 김원중은 이후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 가꾸기 음악 활동은 물론 전국의 인권·평화·통일 관련 행사, 자선행사 등 콘서트에

를 함께 무대에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다른 장르와의 소통, 나눔의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이 찾아와서 보는 ‘달거리’ 공연이 정말로 ‘예향’ 광주의 현 주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처럼 ‘달거리’ 공연에서는 클래식과 국악, 미술, 대중음악, 미디어 아트, 회화 등 다양한 예술을 모두 만날 수 있다. 올해는 화상 중계를 통해 달거리 공연의 취지에 공감하는 외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공연장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주로 통기타를 메고 노래만 부르던 그가 곡을 만들고 노랫말을 쓰기 시작한 건 2차 달거리를 시작할 무렵인 2010년부터다. ‘가수로서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해준다’는 점에서 ‘달거리’ 공연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가 만든 노래는 대부분 ‘광주’를 담고 있다. 광주천, 무등산, 장벌레, 사직공원 등 광주를 기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 그동안 준비해 온 광주와 달을 노래한 김원중의 음반은 올 하반기 발매될 예정이다.

/이보람기자 boram@·사진=최현태기자 choi@

호남예술제 성악 초등부 입상자

| | | |
|----------------|----------------|----------------|
| 〈심사위원〉 | 35 이성빈(문정초2) | 45 정희주(신창초3) |
| 강숙자(전남대 교수) | ◇초등부 3.4학년 | 46 박보경(광주남초4) |
| 박형하(광신대 교수) | ▲최고상 | 48 우서연(광주송원초4) |
| 김영지(초당대 교수) | 12 이시욱(살레시오초4) | 49 나혜린(운남초3) |
| 김미옥(광주대 겸임교수) | ▲금상 | 50 노정인(불로초3) |
| 김선희(한세대 겸임교수) | 3 정여진(광주송원초3) | 51 조소연(광주송원초4) |
| | 17 이은교(살레시오초3) | 54 지유솔(광주송원초3) |
| | 24 최보람(살레시오초3) | 56 박유진(선창초3) |
| ◇초등부 1.2학년 | 25 김신영(유촌초4) | |
| ▲최고상 | 53 전시은(문산초3) | ◇초등부 5.6학년 |
| 3 박도연(화순초2) | 55 정가현(문정초3) | ▲최고상 |
| ▲금상 | ▲은상 | 18 김해원(문흥중앙초5) |
| 13 엄준용(백일초2) | 14 김지아(광주송원초4) | ▲금상 |
| 23 최창훈(동림초2) | 15 김민서(유안초3) | 17 이선우(정암초6) |
| 38 김서영(광주남초2) | 16 주예진(운리초4) | 19 조수영(조봉초5) |
| ▲은상 | 38 김하윤(운리초4) | 24 이은서(광주용봉초5) |
| 20 양인영(하남초1) | 40 이채원(광주남초4) | ▲은상 |
| 24 설슬결(문정초1) | ▲동상 | 3 유재원(여수한려초5) |
| 31 채승희(광주용두초2) | 2 오주원(목포영산초4) | 5 김창우(연제초5) |
| 32 정진희(광주남초1) | 9 채병훈(광주송원초3) | 14 오세영(동림초6) |
| 37 김소율(광주송원초2) | 11 오현아(문정초3) | 15 강태훈(안심초5) |
| ▲동상 | 18 김래현(광주송원초4) | 20 김민철(광주남초5) |
| 5 최 봄(금부초1) | 22 유은채(큰별초4) | ▲동상 |
| 14 오현서(문정초1) | 28 김초원(광주삼육초3) | 1 박효진(살레시오초6) |
| 18 선지호(광주삼육초1) | 29 박소현(무안남초4) | 2 박나영(선창초5) |
| 21 한신재(살레시오초2) | 30 임정민(광주송원초3) | 8 서진선(안심초6) |
| 25 김민서(일신초2) | 34 오현지(광주송원초4) | 10 최서영(광주송원초5) |
| 26 정인성(살레시오초1) | 35 김초영(광주삼육초3) | 11 강용민(하남초6) |
| 33 김선우(광주송원초2) | | 23 김선미(광주남초6) |

진도 토요일그림경매 서울 간다

5월 2일까지 ‘재테크 박람회’ 참가



강경복작 ‘귀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진도 토요일그림경매가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재테크 박람회 ‘서울 머니쇼’에 참가한다.

‘서울 머니쇼’ 후원으로 참가하는 전남문화재단은 이 기간동안 ‘토요일그림경매 홍보관’을 운영, 남도예술은행 소장작품 중 국전 수상경력에 있는 유망작가들의 작품 30점(한국화 15점, 서양화 4점, 문인화 7점, 서예·서각 3점)을 선보인다. 이와함께 ‘해설이 있는 그림경매 체험’,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인 서거라 작가와 함께하는 서화그리기 등 체험 이벤트도 진행한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재테크에 관심있는 박람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는 것은 물론 미술품 재테크 관심을 높이고 그림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3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
|------------------|------------------|
| 본점 062)227-9940 | 총장점 062)227-9970 |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위), 2008년(22위), 2010년(37위)
2012년(47위), 2014년(57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개령동 휴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